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3월 10일(화)

#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국채수익률, 유럽 양적완화 영향 소폭 하락
- 2) 임금인상 적극적인 소규모업체들 증가

#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유로화, ECB 국채 매입 시작에 12년 최저
- 2) 헤알 급락세, 브라질 정국혼란 가중

#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쉘컴, 자사주 매입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국채수익률, 유럽 양적완화 영향 소폭 하락 (해외 경제 동향 1번 기사 참조)

- 지난 9일, 트레이드웍에 따르면 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4.4bp(1/100%) 하락한 2.195%를 기록
  - 이는 유럽중앙은행(ECB)의 양적완화 영향이며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bp 내린 2.800%를 나타냄
- 한편, ECB는 이날부터 매월 65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에 돌입

### 2) 임금인상 적극적인 소규모업체들 증가

- 지난 10일, 전미자영업연맹(NFIB)은 미국의 2월 소기업낙관지수가 전월 대비 0.1포인트 오른 98.0으로 집계됐다고 밝힘
  - 이번 NFIB 소기업낙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0.9포인트 하회하는 수준에 그침
- NFIB는 이번 설문에서 향후 몇 개월 내 직원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한 소규모업체의 비율이 전월 대비 2%포인트 오른 14%로 개선됐다고 지적
- 한편, NFIB 소기업낙관지수는 미국 전역의 임금 인상 추세를 반영하는 선행지표로 여겨져 왔지만 2013년 들어 이같은 상관관계는 약화되는 추세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유로화, ECB 국채 매입 시작에 12년 최저

- o ECB가 월 600억 유로 규모의 국채매입을 시작한 가운데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12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
  - 현재(3/10/2015) 유로화는 달러화에 전장 대비 0.5% 하락한 1.0798달러에 거래 중이며 달러/유로 환율이 1.1달러를 하회한 것은 2003년 9월 이후 처음
- o ECB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유럽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 효과를 위해 양적완화로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음
- o 한편,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은 이르면 올해 안에 1유로와 1달러의 교환비율이 1대 1이 될 것으로 전망

### 2) 헤알 급락세, 브라질 정국혼란 가중

- o 지난 9일 브라질 헤알은 달러 대비 1.3% 하락한 달러당 3.1039헤알까지 내려감
  - 이는 지난 2004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간 수치이며 최근 6거래일 동안에만 9% 넘게 빠짐
- o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추지하는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이 통화 급락세의 배경이며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이 정치권으로 퍼지면서 정국불안도 심화됨
  - 이날 호세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약 10만명이 참여할 예정인 대규모 대통령 탄핵 시위를 염두에 두고 브라질리아 대통령 관저에서 대선 무효와 대통령 탄핵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

-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긴축과 증세를 통한 경제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으나 이후 여론은 더 악화됨
- o 잇단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, 유가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며 브라질 경제는 올해 침체가 예상됨
- o 한편,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역시 각 17년, 14년만에 최저치를 갱신, 터키 리라화는 이날 정부의 개입으로 9일 만에 간신히 반전했지만 여전히 불안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퀄컴, 자사주 매입

- o 지난 9일,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반도체 제조사 \*퀄컴이 15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
  - 이날 향후 12개월 안에 자사주 100억달러어치를 사들인다고 밝혔으며 배당금 역시 주당 48센트로 14% 늘릴 계획, 새로운 자사주 매입은 기존에 남아있는 21억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됨
- \* 퀄컴은 미국 디지털 무선통신제품 및 서비스 전문업체
- o 퀄컴의 매출 증가세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와 제조사들간 경쟁 심화로 급감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은 약 3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해 증가율 7%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
- o 또한, 중국 정부와의 특허 수수료 마찰로 지난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9억7500만달러의 과징금 철폐를 맞음
- o 한편,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는 퀄컴은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이것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확대를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 밝힘